

금융위, IMA 재가동·발행어음 확대… ‘생산금융’ 힘 신는다

‘미래에셋·한투증권’ 종투사 의결
연내 신규 IMA 출시 가능성 높아
형태·위험 수준 등 핵심쟁점 모호

국내 자본시장이 8년 만에 첫 종합투자계좌(IMA) 인가와 발행어음 인가 확대를 통해 ‘생산금융’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을 8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키움증권을 4조원 종투사 겸 단기금융업 인가 사업자로 최종 의결하며 IMA·발행어음 시장을 동시에 재가동했다. 모험자본 공급의무 도입, A등급 채권 실적 인정 상한 설정, 코스닥 리서치 강화 등 생태계 개선 방안도 함께 확정됐지만, IMA의 상품 구조·위험등급·제재 기준과 같은 핵심 쟁점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금융위는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금액의 25%가 아니라, 금융위는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 대비 25%에 상응하는 규모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리스크’ 발생 우려에 대해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는 “조달액 기준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행어음의 단기성·모험자본의 장기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무 기준은 여전히 원칙 수준이라는 지적이 남는다. 금융위가 제시한 ‘상응하는 규모’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자산 기준으로 충족하는 구조”라는 설명만 반복했다. 모험자본 범위는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증권, A등급 이하 회사채,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 출자금, 국민성장펀드, BDC 등으로 확대됐지만, 구체적인 위험관리 기준이

나 자산 구성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에 대한 모험자본 실적 인정 비중(30%) 제한에 대해서는 “결국 나머지 70%는 더 높은 리스크 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BDC 비율과 개인투자자 위험배분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단계적으로 30%→10%로 낮아진다. 기존 발행어음 사업자들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고려해 2026년 15%, 2027년 10%까지 유예 기간이 설정됐지만, 부동산 싼름을 줄이

려는 금융위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 베일에 가려진 IMA 상품

첫 IMA 상품의 구체적 구성과 위험등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졌다. 관련 상품에 대한 형태·위험 수준에 대한 질의에 금융위는 “두 회사가 경쟁 중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투자설명서·약관이 회사별로 개별 심사 중이며, IMA는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지 않고 기준수익률(성과보수 허들), 위험등급, 주요 투자대상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용 이력이 쌓인 뒤에는 과거 수익률이 추가 정보로 제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재 기준 역시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8조 종투사 인가 취소 가능성’이나 ‘모험자본 공급률 미달 시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취소 규정이 존재한다”, “협의체에서 점검하며 논의한다”는 원칙적 답변만 돌아왔다. 초기 사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발행어음과 IMA가 동시에 재가동되면서 자본시장에 새로운 조달 경로가 열린 것은 분명하다. 다만 첫 IMA가 어떤 구조로 등장하고, 모험자본 규제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생

산금융’ 전환이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IMA는 고객 예약금을 통합 운용해 실적을 배분하는 계좌로, 외형만 보면 예금과 유사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금융위는 “원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표현하지만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며, 중도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리스크 우려에 대해서도 “발행어음 조달액이 아닌 전체 자산으로 의무를 채우게 한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첫 상품의 구성과 위험 등급에 대해선 두 회사 모두 경쟁 상황을 이유로 구체적 설명을 자제했지만, 금융위는 “회사별로 투자설명서와 약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연내 첫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모험자본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코스닥 기업 분석이 부족해 중소·벤처기업 투자 회수 경로가 제한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종투사 중심으로 코스닥 리서치 전담부서 확대와 기업 분석 범위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거래소, 美 ‘FIA Expo’ 참가… 韓 자본시장 경쟁력 소개

홍보부스 운영·컨퍼런스 참가
KRX 야간시장 운영 성과 공유

한국거래소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파생상품 컨퍼런스 ‘FIA Expo 2025’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FIA가 주관하는 본 행사는 40여개 세션별 컨퍼런스 진행 및 60여 개에 달하는 참가기관들의 홍보부스 운영으로 구성됐으며, 약 4000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거래소는 파생상품 산업의 중심지이자 한국 파생상품시장 투자 기반이 공고한 핵심 마케팅 지역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 확대와 현지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은 KRX 파생시장 고객기반(계좌수) 2위, 거래대금 6위 지역에 꼽힌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가운데)이 지난 17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파생상품협회(FIA) Expo에 참가해 KRX 홍보부스를 찾은 현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KRX 파생상품시장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행사 기간 동안 거래소는 홍보부스 운영 및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올해 6월 개장한 KRX 야간 파생상품시장 운영 성

과와 10월 신규 상장한 코스닥150위를 리옌션 및 주요 제도 개편 사항을 적극 소개했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시장전망’(서클 CEO 초청 대담), ‘가상자산 거래생태계 발전(코인베이스 임원 발표 세션)’ 등 주요 세션별 컨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 최신 트렌드 및 향후 인프라 발전 방향 등을 파악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최근 코스피 강세와 함께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효율적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파생상품이 보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시장 불안에 가상자산 수직하락… “올해 상승분 다 사라져”

비트코인, 한 달새 25% 급락

최근 한달반 사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조2000억달러(한화 약 1760조원) 증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가상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코인게코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1만8000개 이상의 가상화폐 시총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12만6251달러)를 찍은 지난날 6일 이후 25% 급락해 1조2000억달러 감소했다.

투자은행 칸토 피츠제럴드의 가상화폐 애널리스트 브렛 크노블라우는 “기관

의 (가상화폐) 채택 확대와 규제 측면의 긍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분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한 달간 초고위험 레버리지 포지션의 손실이 매도세를 가속했다고 분석했다.

시장 불안을 촉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날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가상화폐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사상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내

최고가 대비 14% 넘게 수직 낙하했다.

가상화폐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의 리서치 총괄 라이언 라스무센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랑한다. 우리가 거둬보는 것은 트레이더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연중 고점 대비 30% 급락한 비트코인은 나스닥 종합지수, 아이셰어즈 20년 미 국제 상장지수펀드(ETF), 금, 미국 유틸리티 지수, MSCI 이머징마켓 지수 등 자산들과 비교해도 올해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신하은 기자



서유석
현 금융투자협회장



이현승
前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서유석·이현승·황성엽 3파전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

정영채 메리츠증권 고문 불출마
서유석, 금투협 최초 연임 도전

제7대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가 서유석 현 협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은 출마하지 않았다.

현직 회장인 서유석 회장은 금투협 출범(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도전했다. 그는 전날 밤까지 서류 준비를 마치고 마감 당일 오전에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회원사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

체를 위한 역할이 협회장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황성엽 대표는 40년 가까이 신영증권 한국에서 근무한 ‘정통 신영맨’으로, 자산운용·IB·경영총괄 등 현장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정책 조율과 업계 소통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크호스로 평가된다.

관료 출신인 이현승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 경력을 토대로 대관 능력을 내세웠다. 그는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회원사의 신사업 인허가 지원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후보 명단을 압축한다. 최종 회장은 12월 중순 열리는 총회에서 회원사 투표로 결정된다.

/허정윤 기자

